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A형)

1. 제시문 (가)-(라)를 각각 요약하고, 이 제시문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의 관점을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고대 철학자들이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여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부유했다는 예를 들어 '자발적인 빈곤'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쾌락의 창조이므로, 마음에 거리낌 없이 현실적 욕망과 육체적 욕구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다)는 물질적 이득을 확대해 온 근대 산업 문명의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며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욕망을 절제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인류의 생존에 기본적인 것 이상의 소비 즉 욕망에 충실한 소비가 인류 문명을 창조해온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즉, 제시문 (가)와 (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자발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나)와 (라)는 인간의 행복과 욕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455자)

2. 위에서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관점의 제시문을 각각 논거로 활용해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비판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I. (가)(다) 선택 - (나)(라) 비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해야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참된 인류의 문화가 가능하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욕망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조르바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쾌락에 두고, 현실적 욕망이나 육체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에 충실한 모습은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풍부하고 성숙한가에 달려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을 경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끊임없는 불만과 불행을 야기하고, 반성 없는 쾌락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발적인 빈곤'과 같이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물질과 욕망에 구속 없이 삶을 현명하게 관찰하고 정신적 만족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인간의 욕망을 문화적·문명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존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소비에 만족하기 힘들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소비가 반드시 문명을 이끌고 가치 있는 문화를 창조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여분의 소비나 낭비란 대부분 사치품이나 유행에 따른

소비처럼 욕망에 충실한 소비인데, 이러한 소비 문화는 오히려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든다. 이는 (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 산업 사회 이후 인류가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었고, 정신적 황폐화와 내면적 공허함에 허덕이게 된 결과로도 알 수 있다. 결국 인류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박한 삶의 가치를 체득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물질 위주의 가치 지향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관과 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필요를 넘어선 욕망의 추구는 사치이므로 '자발적 빈곤' 혹은 소박한 삶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현대와 같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자세이다. (1,157자)

II. (나)(라) 선택 - (가)(다) 비판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욕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 인류사회의 정신적·물질적·문화적 발전은 인간이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욕망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 내용은 사치품이나 생활 편의품을 불필요한 삶의 열매라고 규정하고, '자발적 빈곤'을 통해 인간 생활을 현명하게 관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 빈곤'은 물질적 방면에서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욕망을 억누르며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나)의 조르바처럼 현실적 제약과 내면적 구속을 벗어난 지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사치품과 생활 편의품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그것이 물질적 욕망이든 정신적 욕망이든 인간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는 인간의 욕망을 문화적·문명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 내용은 근대 산업 문명이 물질적 이득을 확대해 왔을 뿐 인간의 내면적 요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는 힘들다. 이는 (라)에서 언급한, 경제적 축적 없이 완전한 소비를 추구했던 칼라리 사막의 유목민 부족이 가치 있는 문명이나 문화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방증한다. 또 물질적 풍요를 기초로 한 여분의 소비는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문명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대 산업 사회 이후 인류는 물질문명을 적극적으로 추구했고, 그것을 기초로 현재와 같은 문화적·문명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고 빈부격차도 확대되었지만 이것은 인류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인류 문명 발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정신적·물질적 발전을 이루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1,142자)